

40代 '자부심' 크고, 여성 '법문' 좋아해

연령·성별·신앙형태별 분석

연령별 분석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참불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무조건 믿음'에 앞서 자기 확신 정립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자기 확신'의 중요성은 30대(64%)-40대(46.8%)-50대(45.9%)-60대 이후(27.6%)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60대 이후는 '무조건 믿음'을 최우선 요건으로 선택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 신앙보다는 무조건적 신앙 행태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신앙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답변도 30대(52.8%)-40대(56.7%)-50대(63.2%)-60대 이후(70.7%)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불자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가 '실천'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불자로서 자부심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82.8%)였으며, 그 뒤로 30대(82%)-50대(78.2%)-60대 이후(75.4%) 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보인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을 중요시한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념과는 다른 것이어서 흥미롭다. 또 종교가 삶의 여러 요소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족-종교-인간관계-물

질-명예 등 모두 8가지 항목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는 질문에서 모든 연령대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종교'는 30-40-50대에서 3순위, 60대에서는 4순위로 나타났다. 가족의 중요성은 60대에서 3순위,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순위로 나타났다.

성별 분석

60대 이후는 "무조건 믿음" 강조

'종교'보다 건강·가족 더 중요...보편적 인식

남 34.7% "행동기준", 여 36.5% "삶의 전부"

신행 돈독할수록 "교리이해 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정적 성향을 드러냈다. '자신의 신앙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남자는 58.6%인 반면, 여자는 64.5%였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5% 정도 낮았다.

'불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부정적 견해가 여자(49.2%)보다 남자(46.5%)가 3% 가량 낮았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중

요성 인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10% 정도 높았다.

신앙형태는 남자의 경우 '경전·기도-일상-책-스님법문-수행-절'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경전·기도-일상-스님법문-절-수행-책'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남자는 스님 법문보다 불교서적을, 여자는 불교서적보다는 스님법문을 선호하는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신행태도별 분석

'불교가 삶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신행했수 5년 미만 불자들은 '사고와 행동의 기준-삶의 전부-의지처' 순으로 답한 반면, 10-20년 차는 '삶의 전부-의지처-사고와 행동의 기준' 순으로 응답했다. 20년 이상 신행 경력자는 '삶의 전부-사고와 행동의 기준-의지처' 순이었다. 이는 신행경력이 10년을 넘으면 불교가 삶의 전부가 되는 경향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신행 경력이 오래될수록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자의 자부심은 69%였으나, 30년 차는 8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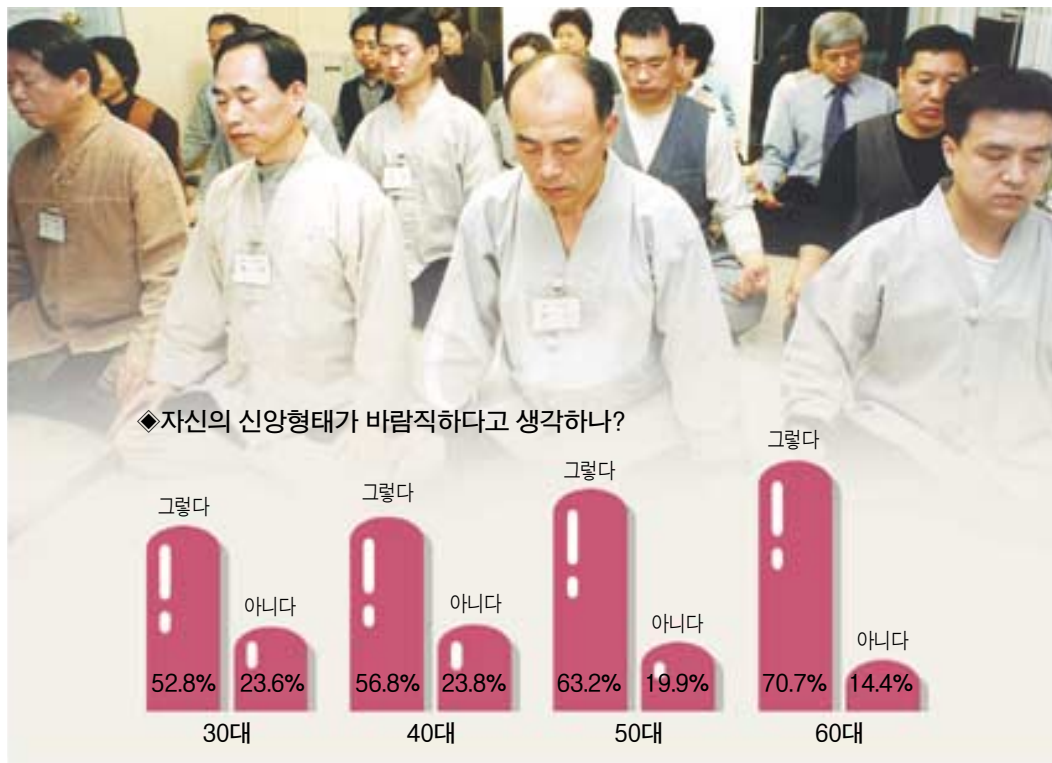
신앙형태별 분석

자신의 신앙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불자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불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또 '자신의 신앙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보다 교리나 경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앙태도에 부정적인 사람은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실천'이나 '교리 및 경전 이해'보다는 '신심'을 가장 부족한 요소로 꼽았다.

한영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설문조사 숨은 이야기

사람의 생각을 단순한 몇 가지 질문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작업이었다. 선지를 앞두고 지지자를 묻는 것처럼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인 조사가 아닌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몇 가지 항목으로 뭉뚱거리는 것도 설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설문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사 결과의 이면과 모순되는 대담에 관한 일종의 행간 읽기로 독자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머리와 몸의 괴리
자신의 삶에서 불교는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질문에 '삶의 전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불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실천'의 부족이 대담이 가장 많았다. 모순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현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 만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남녀 공히 종교는 건강, 가족, 인간관계 다음 순위였다. 하지만 이 경

3. 생활속 신행 확산
추구하는 신행 형태도 '절과 집

을 가리지 않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불교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도 개인적 수행을 으뜸으로 꼽았다. 교리를 몰라도 신행이 가능하다는 태도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불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행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높았다. 불교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도 개인적 수행을 으뜸으로 꼽았다. 교리를 몰라도 신행이 가능하다는 태도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불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행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구하는 신행 형태도 '절과 집

을 가리지 않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불교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도 개인적 수행을 으뜸으로 꼽았다. 교리를 몰라도 신행이 가능하다는 태도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불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행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몇가지 질문으로 신행계량화 어려움 따라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가 도그마에 갇힌 종교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2. 신행 평가에 대한 연령·성별 차이
자신의 신앙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질문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다. 불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도 30대와 60대가

조사방법·표본 특성

본 설문조사는 현대불교 재가불자 구독자 가운데 1만1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우편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이나, 성별, 나이, 직업, 신행했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불교계에 불자들이 대상으로 이처럼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수된 설문은 1,402부로 12.8%

본지 독자 1만1천명 무작위선정 우편질문

1402명 응답...20대 응답자 적어 조사제의

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설문의 평균 회수율이 5% 내외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본지 구독자라는 표본의 구성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2일 이후 회수된 설문지도 6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신문 제작 일정상 이들 답변을 결과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1,402명 중 20

대는 11명에 불과해 이들이 제시한 견해가 표본적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 연령별 분석에서 제외했다.
설문 결과는 이전까지 본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것과 비교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불교전문지(본지)를 구독하는 불자들이 그렇지 않은 불자들과 비교해 활발한 신행을 하고 있고, 또 불교 관련 제반 현상에 대한 의식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을 부처님처럼...



찬덕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직원 일동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부처님 오신날 봉축발원문

시방삼세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선언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2547년을 맞이하여 말법시대의 혼돈속에서 불성을 망각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세상 모든 이에게 불성이 가득하게 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빛에 귀의 정진하게 하옵시고, 큰 가피속에 중생의 삼독심(탐·진·치)을 녹여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어 중생의 무명번뇌를 씻고 부처님의 밝은 해탈세계에 이르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김지산

본 설문조사는 현대불교 재가불자 구독자 가운데 1만1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우편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이나, 성별, 나이, 직업, 신행했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불교계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대규모 설문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수된 설문은 1,402부로 12.8%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적 설문의 평균 회수율이 5% 내외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본지 구독자라는 표본의 구체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2일 이후 회수된 설문지도 6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신문 제작 일정상 이들 답변을 결과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1,402명 중 20대는 11명에 불과해 이들이 밝힌 내용이 표본적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 연령별 분석에서 제외했다.

설문 결과는 이전까지 본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것과 비교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불교전문지(본지)를 구독하는 불자들이 그렇지 않은 불자들과 비교해 활발한 신앙을 하고 있고, 또 불교 관련 제반 현상에 대한 의식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